



|            |            |                   |            |
|------------|------------|-------------------|------------|
| 수요 기도회     |            | 2008년 5월 28일(수요일) | 수요 기도회     |
| 진행: 이 필로메나 | 음악: 신 미카엘라 | 참가 가족: 13명        | 진행: 이 필로메나 |

### 나눔: 오늘은 사랑에 대해 나눔

- + “ 주님 주님 “ 하면 두렵다. 마지막날에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봐...
- + “ 사랑 “ 참는게 힘들고 ....용서 인데 용서가 어려워.... 참고 용서하는 사랑이 너무 힘들다. 사랑은 희생, 희생이 없는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사랑. 행동이 따라야 한다.
- + 지금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 그러다 보니 행동과 말이 조심스러워 지고 ... 주님의 사랑은 어떤지 배워가려고 함
- + 사랑의 여러종류... 남녀간의 사랑, 의리의 사랑, 신하의 사랑, 사랑을 받기 위해 애교떠는 사랑... 내안의 이런 복합적인 사랑이 나올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봄
- + 잘해주는 사랑, 편하게 해주는 사랑... 나는 어떤 사랑인가 생각해봄
- + 하느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 오늘 복음과는 좀 다르다. 나의 어려운 상황이 불안해짐 사랑의 확신이 없으니 믿음이 부족해지고 불안해짐

### 예언 말씀

- +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곁에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 준다. 정의의 말로 도와준다.
- + 내 자녀들아 믿어라. 믿음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자는 복되다.
- + 어떠한 처지에서도 기대를 가져라. 기대와 믿음을 통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그러니 포기 하지 마라.
- + 무거운 짐진야 내게와서 쉬어라.
- + 진실을 가지고 사랑하는자만이 그 진실이 사랑을 하여 더 블래우리라.
- +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모든것을 거저 주었다 네가 받은것을 이웃과 나누어라.
- + 내가 너희를 받아준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받아주어라.
- + 보잘것 없는 너희 이웃에게 해준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 공지사항

8월 성령대회를 위하여 성령께 바치는 고리 기도 시작했습니다  
산호세 성당: 6월 4일 부터~~~~

참석 : 정 멜라니아, 이 니콜라스, 이 필로메나, 이 캐롤린, 임 요안나, 임 요셉, 임 다윗  
김 빅토리아, 신 미카엘라, 권요셉, 권 빅토리아, 석 레오, 박 세실리아, < 13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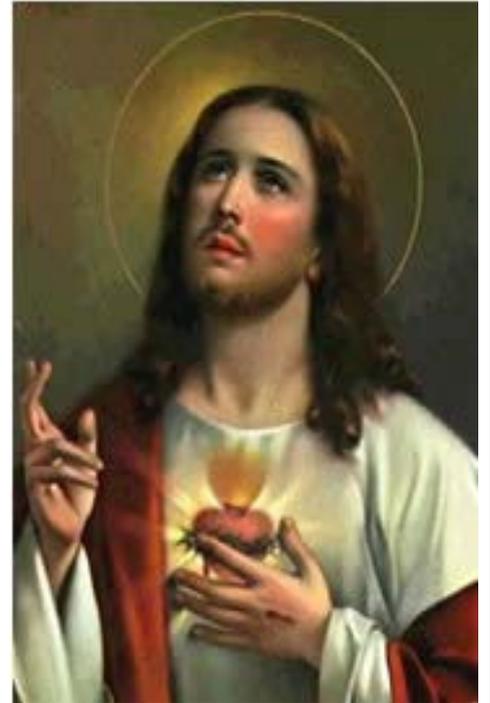
+ 복음 [마태 7,21-27]



**예수성심의 약속**

1674년 성녀 말가리다 마리아 알라꼭이 성체조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성심을 열어 보이시고 죄인들의 냉담과 배은망덕을 탄식하시면서 "적어도 너는 온갖 힘을 다하여 죄인들의 배은을 보속하라"고 부탁하시면서, 그방법으로 자주 영성체하고 매달 첫 금요일에 영성체할 것과 성시간을 가질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다음의 약속을 하셨다.

- 내 성심을 공경하는 자들의 지위에 요긴한 은총을 준다.
- 저들의 가정에 평화를 준다.
- 저들의 모든 근심 걱정중에 위로를 준다.
- 저들이 살아 있을 때와 특히 임종시에 저들의 의탁이 될 것이다.
-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 풍성히 강복할 것이다.
- 죄인들은 내 성심에서 무한한 인자의 샘과 바다를 얻을 것이다.
- 열심한 자는 빨리 완덕에 나아갈 것이다.
- 내 성심 상분을 모시고 공경하는 집안에 강복할 것이다.
- 사제들에게는 극히 완악한 마음이라도 강화시키는 은혜를 줄 것이다.
- 내 성심 공경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겨 없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 누구든지 9개월 계속하여 첫 금요일에 영성체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통회의 은혜를 주어 은총 지위에서 죽게할 것이다.



**1분 명상**

**" 고마운 일만 기억하기, "**



이상하게도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뭔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합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기억하고,  
 타인에 대한 원망은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고마운 일만 기억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 류귀룡의 《한걸음 밖에서 바라보기》 중에서 -

\* 고마운 것은 따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맙지 않은 것도 고맙게 받아들이면  
 고마운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을 고맙게 기억하면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럴 일이 없어보이는데도 얼굴에 늘 미소가 돕니다.  
 그의 인품에 감사와 기쁨의 향내를 풍깁니다.